

여유로워지고 인간적으로 변하는 타이포그래피

표지 이미지 | 글과 '클이난것의 이종주' 비주얼 출판

한글이나 MS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해 본 사람이라면 글자의 크기·종류·자간 등에 대해 고민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타이포그래피는 이처럼 활자를 골라 정렬하는 예술을 말한다. 좀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그래픽디자인에서 특별한 효과를 얻기 위해 활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타이포그래피가 산업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산돌체가 나오고부터다. 이후 1,2년 사이에 포토샵, 일러스트 등 작업도구가 편리해지면서 1990년대 초반 한글서체 개발이 붐을 이루었고 90년대 중반에는 서체 개발이 꽃을 피웠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IMF구제금융체제로 들어서면서 폰트 시장도 급격하게 쇠퇴했다. 수익성에서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에서 한계를 맞은 것이다.

호서대학교 디자인학부 송성재 교수는 “전자매체가 종이매체를 위협하면서 종이매체는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타이포그래피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본문에서 자간·행간·마진 등의 변화와 표지에서 실험적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 있는 손글씨의 도입”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대부분의 편집자들은 자간이나 행간 마진 부분에서 ‘여유’를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텍스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독자들의 요구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한 페이지에 원고지 8매에서 10매까지 들어가던 글들이 최근에는 4매에서 5매 정도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는 이미지와 여백이다.

물론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원고량이 줄어들어서 종이를 낭비하게 되고, 책값이 오르는 등 출판사에서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 편집디자이너는 “책은 독자를 향해 있는 것이고, 독

자가 선호한다면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텍스트의 권위가 약해지고 다른 요소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손글씨는 엄밀하게 말해서 타이포그래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 넓은 의미에서의 타이포그래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손글씨는 표지디자인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독자들은 대량복제시대와 디지털에 대한 반감으로 인간적인 냄새가 풍기는 손글씨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손글씨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완제품에 대한 수동적 소비는 이제 도처에서 저항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자기표현 욕구를 억누를 줄 모르는 젊은이들은 가장 친밀한 소지품에서부터 능동적 소비자를 지향한다. 젊은이들의 이러한 능동적 소비 성향은 ‘두 손 문화’의 든든한 자양분이다.”(《한국인 트렌드》〈소비 세상을 뒤흔드는 ‘두 손 문화’의 탄생〉중에서)

물론 최근의 유행에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 우리누리문화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는 서예가 김두경 씨는 최근 손글씨는 공해에 가깝다고 잘라 말한다. “추사체를 보면 불규칙해 얼핏 못쓴 글씨 같지만 그 안에는 뼈대가 있다”며 “요즘 손글씨들은 모양만 그럴 듯하지 그 뼈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힘이 없는 글씨가 줄 수 있는 감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서체디자이너들은 담보된 시장에서 한층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손글씨를 새로운 돌파구로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예와 타이포그래피의 접목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

신동섭 기자